

십자가 | 이남규 루카, 300x110cm, 레드케임 기법, 1989년, 혜화동성당

입당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즈카 9,9-10

화답송 | 시편 145(144),1-2,8-9,10-11,13ㄷ-14(◎ 1 참조)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

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 로마 8,9,11-13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11,25-30

영성체송 |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삶의 무게가 더없이 무겁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집'의 굴레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집, 자신만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참으로 의아하지요. 삶의 멍에가 우리에게 전달 수 없는 아픔을 주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멍에가 편하고 가볍다니요. 아아,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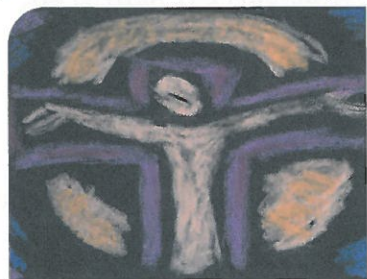
그런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잠시 광야 체험을 하는데 쏟아지는 햇살과 건조한 공기가 저를 에워쌌지요. 그리고 저편에 어미 나귀가 어린 나귀와 함께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아, 잔인한 사람들!" 그러자 가이드 분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레를 끄는 것은 전적으로 어미의 몫인데, 그럼에도 어미의 멍에가 어린 나귀의 목에 연결된 이유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귀가 수레를 끄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예요." 그리고 보니 실제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어미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는 그저 줄에 묶여만 있어 약간의 무게만 견디며 어미 나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뚜렷해집니다. 결국,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

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가볍거나 쉽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앞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질 테니 당신에게 오라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봤던 어린 나귀의 멍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수레의 무게가 어떻게 가냘픈 몸에 걸치고 있는 멍에는 그에게 매우 버거워 보였지요. 하지만 변함 없는 사실은 실제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며 함께 걸어가는 어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성격이 워낙 고집불통이라 가봤던 길만 가려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어요. 주님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며 천천히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짐의 무게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사 안에서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시는 주님의 성체가, 주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짐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저는 철없이 칭얼거리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할 수밖에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주님은 사랑을 가득 담아 약속해 주시며, 피곤하고 상심해 있는 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초대와 약속은 그분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영적 휴식과 구원의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이 말씀으로 제 내면적인 수고와 짐을 공감하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됩니다. 스테인드글라스의 십자가 위 평온해 보이는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저를 안아줄 듯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세상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현재 방구석피정(@frommyroom_retreat)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온라인 선교사 겸 찬양사도로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고, 본업으로는 뮤지컬과 매체 영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얼핏 보면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고, 또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배우의 길을 걷는 동안 제게는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데뷔를 하고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더는 배우의 길을 지속하기 힘들겠다는 마음마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히든싱어 시즌 5 양희은 선생님 편에 출연해서 왕중왕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우연한 기회는 1년 후 참여하게 된 어느 피정에서 저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평화 시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길거리 미사와 찬양 시간을 가지는 자리에, 그 피정에서 만난 신지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천막 속 맨 앞자리에 앉아 미사를 드리는데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제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든싱어 때 모창으로 불러야 했던 '아침이슬'과 '상록수'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 제 목소리가 쓰여야 하는 곳에 목소리를 쓸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해군기지 앞에서 불렀던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는 그동안 수백 번 연습했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되었고, 그때부터 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지향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배우의 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소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유정 발레리아 | 노래하는 배우

소명의 발견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나'라는 개인의 힘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게 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저의 모든 삶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꽃이 피게 되었고, 방구석피정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삶의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사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킵니다. 그리고 그 분리 속에서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선물이라면,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분리되거나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아멘.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사회교리'

"전쟁 선동이나 증오하는 태도, 폭력, 파를 홀리게 하는 행위는 진정한 종교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이라크 방문 중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의 전정한 꿈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말일까요?

고대 사람들은 땅은 평평하고, 땅 아래(지하)에는 죽은 이들이 머물며, 하느님은 땅 위, 곧 하늘에 머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땅은 둥글고, 하늘 위로 높이 날아가면 태양계로, 우주로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늘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에도 나오고(루카 24,51), 사도행전은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알려주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세계관을 고려한다면, 이런 묘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하느님의 세계로 ‘높이 들어 올려졌음’(현양)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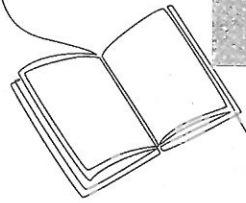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현양 되셨다.’는 표현은 필리피서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현양까지 일련의 과정을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

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필리 2,6-11)

그러니 ‘높이 올려짐’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느님의 영역에 자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현양은 말씀이 취하신 인성(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본질적 특성)을 포함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성을 버리는 것도, 혹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상을 지니셨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현양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상태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게 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감각적 세상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세계를 둘러싼 벽을 열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끝은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거기’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베드로의 기적과 이방인 세례 (사도 9,32-10,48)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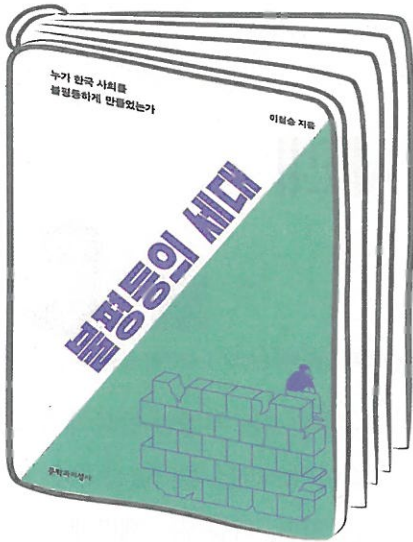
사람은 무리를 지어 자신들에게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리는 이익집단화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교회도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여야 하지만 때로는 닫힌 마음 탓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초창기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닫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 안에는 유대교의 풍습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에 대한 풍습이 그러했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 11장; 신명 14,3-21)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음식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님의 만찬 예식에서 신자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때 몇몇 유대교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거부했고, 일부는 이방인들에게 세례 전에 할례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를 통해 없애십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인물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만, 로마의 백인 대장, 즉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는 이 인물에게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베

드로도 환시를 받습니다. 이 환시는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을 모두 잡아먹으라는 환시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시의 의미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환시 후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벌써 유대인의 풍습이 성령의 인도로 깨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니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도, 물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지만 벌써 성령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랐고 이방인에게도 하느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의 선물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할례 후에 세례를 베푸는 대신, 할례 없이 바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결국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 세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선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간을 협력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 부족함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씩 해체되어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협력자들은 교만보다는 그분의 업적에 순종하는 순명과 겸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서 '불평등의 세대'

나무를 심어 숲을 보기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얼마 전 2022년도 아시아 각국의 12개 대도시와 서구의 3개 대도시 시민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체감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타 도시에 비해 서울 시민들은 자녀를 '인생의 기쁨'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응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출산과 육아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초저출산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공정성에 관한 의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서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는 15개 대도시 중 가장 강하지만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에게 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서울 시민은 (넓게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편향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를 지녔을 때

갈등을 푸는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격차 등 한국의 사회 구조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 불평등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갈등 상황을 사회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 수준'의 문제로 의식하는 데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불평등의 세대 -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이철송, 2019)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20세기 중반 민주화와 세계화가 더 많은 소통과 자유,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한국인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은 신분화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고착화의 기제로 바뀌고 있는,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치, 시민 사회, 경제, 노동의 제 영역에서 권력을 장기간 장악하고 있는 '386세대'의

맥락과 구조적 기제를 살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이념 집단이라 해도, 모두 학맥과 인맥에 기반하여 자원·기회·정보를 동원했으며, '한국형 위계 구조'를 통해 아래 세대를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계 구조에서 청년과 여성이 희생되었다고 분석한 저자는 형평성의 정치를 주장합니다. 학계를 넘어 사회의 반향을 낳은 이 책은 불평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는 데 유익합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약자'나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에게 혐오를 쏟는 '포퓰리즘'적 선동을 쉽게 봅니다. 이런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의 눈에 가난한 라자로가 들어온 것은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을 때(루카 16,23)였음은 놀랍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단의 시야에만 갇혀있었을 겁니다. 더운 여름 무거운 주제의 책과 씨름하며 안목을 넓히는 일도 이열치열(以熱治熱)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선물 Fidei Donum



김재원 베드로 사별 신부 | 대만 선교

찬미 예수님! 모두 평안하신가요? 이곳 대만도 코로나 팬데믹이 사그라지고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대체로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신자들이 비교적 많아서 마스크 해제에 대해 아직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는 저도 습관이 되어 뭔가 허전한 기분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도 물론 기쁘지만, 받는 이가 행복해질 때 주는 사람도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고를 때에는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아 준비하게 됩니다. 비싸든 안 비싸든 선물에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선물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 대 교회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선물이 물건이라면, 교회 대 교회 간의 선물은 물건이 아닌 신앙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이 사람 간에 정을 쌓고 관계를 맺게 하듯, 교회의 선물은

신앙의 유대를 맺게 합니다. 교구 대 교구 간의 계약을 통해 선교 사제를 파견하는 것을 '피데이 도눔(Fidei Donum)'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신앙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부족한 교회에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해 주는 것, 그래서 그곳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물'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선교회 혹은 수도회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 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구 사제를 다른 곳으로 파견할 만큼 여유가 있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피데이 도눔'으로 파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특히 서울대교구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덕분임에 먼저 감사드리게 됩니다. 대만에서 첫 분당에 발령받아 신자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저는 '피데이 도눔'을 통해서 온 서울대교구 신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앙의 유대로 서울에서 보내 준 선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 자신을 선물이라고 소개하다니, 지금 떠올려 보면 참으로 오글거

리는 표현이었네요. 선물,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 자신이 교회의 선물이라는 것, 특히 서울에서 신주 교구로 보내 준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대만 교회 공동체와 교회에 선물이 된다는 것, 그 말은 제 자신이 힘을 내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선물이란 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는 쪽에서도 의미와 정성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 선물하는 것이니까요. 제 자신이 선물일 때, 저는 보낸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선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양쪽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본 적이 있었나?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을까?'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물이고,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2년 7월 10일 정규량 레오 신부(69세)
- 1992년 7월 15일 허창덕 치료 신부(73세)
- 1997년 7월 12일 정옥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 2009년 7월 16일 이병문 베드로 신부(65세)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7월 유가족 미사 안내

때, 곳: 7월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76차 미사 7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함흥교구 북청 분당, 성진 분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제52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존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전 신자 및 후원회원
 때, 곳: 7월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온라인 전례학교

때: 8월1일(화)~8월31일(목)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분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의 공문 참조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회비: 2만원 / 7월25일(화) 마감
실기	대상: 해설자, 독서자, 제대봉사자 회비: 1만원 / 7월25일(화) 마감

2023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학교장 인준의 전문(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3년 7월10일(월)~21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천주교 세례를 받은 신자,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2023년 9월 개강
하반기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 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서울대학교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7월11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제28회 농민주일 행사 안내

농민주일 기념미사(유경춘 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우리농과 함께하는 「찬미반오소서」 행동, 생명농산물 나눔장터 '명동보름장'
 때, 곳: 7월16일(일) 10시~16시, 명동대성당 일대
 문의: 02)727-2363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만 20세 이상, 고졸이상 가톨릭 신자
 교육기간: 9월~2024년 6월 / 모집기간: 6월19일~7월31일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seoul.catholic.kr)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예약 안내 / 문의: 02)774-1784

1월~6월: 7월28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12월: 2024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임영자 개인전: 1전시실
 2023 성미술 청년작가 기획전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 2전시실
 2023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배요한 개인전 <생의 생의 생의 기록> 3전시실
 전시일정: 7월12일(수)~20일(목)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분야: 재무회계, 물류관리, 물류행정, 주얼리디자인 /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대학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직원 모집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사무원 1명(계약직)
 업무: 일반 사무, 회계 경리, 후원 관리, 도서 보급, 행사 보조 등 / 서류: 입사지원서(fatimaseoul.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접수 / 이메일(seoulfatima@gmail.com) 문의

한국틴스타 직원 모집

분야: 사무 및 경리 담당 / 문의: 02)727-2358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한국틴스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한국틴스타) 및 이메일(kteenstar@hanmail.net) 접수

서울대학교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7월2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인준단체 알림

모임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기도, 강의, 묵상, 미사 있음 / 010-2724-4819
 때, 곳: 7월24일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강사: 한정옥 / 문의: 010-8898-6770
 때: 7월15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2023년 성모술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일) 7월7일~9일·8월11일~13일
 ·9월8일~10일(2박3일) /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골롬반 여름 청년 피정

때: 7월15일(토) 10시~17시 / 대상: 24세~40세 신자
 회비: 1만원 / 접수: bit.ly/columbanretreat07
 문의: 010-3817-056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센터·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7월22일~24일·8월27일~29일·9월1일~3일·9월5일~7일·9월8일~10일·9월16일~18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8일~30일·8월1일~3일·8월5일~8일·8월11일~1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때: 매주(월) 14시~17시 / 문의: 010-7393-7924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주차 가능) / 미사, 안수

7월10일	배형진 신부	7월24일	김경희 수녀
-------	--------	-------	--------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1박2일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2박3일	8월4일(금)~6일(일)

우이동 명상의 집 7월 피정 / 문의: 02)990-1004

다네이 영성수련 피정 7월27일~30일, 8월10일~13일(3박4일)	
개방의 날	매일 첫금요일(무료)
개인 피정 위탁 피정	별도 문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효소단식	7월20일(목)~23일(일), 8월3일(목)~6일(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I	7월28일(금)~30일(일)
성경완독	8월11일(금)~19일(토), 10월13일(금)~21일(토)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이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7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7월26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때: 순례 9월9일~11일(대구대교구 17곳), 수도원 외 7월22일~24일(춘천교구 15곳), 10월21일~23일(안동교구·원주교구) /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파정의 집)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서울 파타마의 세계 사도직 파타마 성모발현 피정-미사

주제: 파타마, 복음의 메아리-자비의 표징
 강사: 이선영 수녀(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때: 7월13일(목) 오전 9시10분(찬미), 10시~12시 30분·13시30분~15시30분(강의), 15시30분(미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7월21일~23일, 8월26일~28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라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11월4일~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7월14일(금)~16일(일)	정남진 신부(원주교구)
8월18일(금)~20일(일)	민범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차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성경학교	(화)	13시~15시30분	미사 없음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문의: 02)324-0852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ICPE)

대상: 모든 신자(자녀 동반가능) / 문의: 010-5646-6594
 때, 곳: 8월10일(목)~15일(화), 꽃동네 영성원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8월31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영성센터 A201호 / 010-9590-4560, 010-5236-5493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19시~22시(주5일 수업 예정),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6240-3216 김은지 선생

지혜의 샘 여름특강 캠프

강의: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신학캠프 (그리스도론)	7월17일부터 (월) 19시~21시30분(6회)	지혜의 샘 (부천시 송내동 366-5)
성경캠프(성경 테마별 희랍어 통독)	6월14일부터 (수) 19시~21시30분(7회)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에파타성당 사무실 / 회비: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7월5일(수)	기초반·고급회화반 13시30분~15시	
7월6일(목)	기초반·고급회화반·가톨릭어 20시~21시30분	기초반 19시~20시50분
7월7일(금)		기초반 19시~20시50분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때: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 매주 수업

매주 (화)	예언서 /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개강: 9월5일, 성바로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 45주
매주 (목)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개강: 9월7일, 성바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문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9월 개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각 10~12주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화)	서학과 박해	소진형 박사
(화)	성경대학-공관복음2(7회 과정)	송봉모 신부
(수)	성인들의 꿈이 알려주는 10가지 비전	홍기영 교수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하느님의 지혜, 구약성경의 지혜문학	주원준 박사
(목)	영적 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기도란 무엇인가	이규성 신부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본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세미나 / 문의: 02)874-6346

때: 7월1일(토)~8월26일(토) 13시~17시(7주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상주기도원 / 회비: 2만원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203차 한국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때: 7월31일(월)~8월4일(금) 9시30분~16시30분
곳: 명동 영성센터 B동 302호 / 회비: 18만원
신청방법: www.teenstar.or.kr / 문의: 02)727-2359

2023년 가톨릭뮤직캠프(1박2일)

때: 8월18일(금)~19일(토) 1박2일
곳: 민족화해센터(파주) / 회비: 15만원
과목: 소프라노, 알토, 남성, 기초발성반
50명 선착순 접수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가톨릭북아평화연구소·모니카교회음악원)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균중교구 앓춤성가대 단원 모집

군부대 위문연주, 균중교구 내 행사시 성가대 활동
유튜브 앓춤성가대 검색 / 문의: 010-9047-9387

시스피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642-8818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이 84회 정기공연(가을, 라흐마니노프의 밤샘기도)을 함께할 30~40대 단원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 문의: 010-2778-2704 총무

한누리이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문의: 02)735-3633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 hannuricenter@hanmail.net
분야: 초등·중등영어, 요리교실·미술교실, 초등 피아노, 방학점심 급식조리(요일선택 가능)

주교좌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약간명
대상: 세례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혼인미사 일정 에 따른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분, 만 26세 이하의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조
문의: 02)774-1784 성음악봉사분과

마사

글라젯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레미사

때, 곳: 7월17일(월) 11시, 글라젯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레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사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레미사 / 문의: 02)753-8765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때, 곳: 7월20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오기선요셉신부 33주기 추모미사(오기선요셉장학회)

때, 곳: 7월29일(토) 낮 12시,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 추기경 기념경당 및 직자묘지(031-334-0807)
집전: 김정수 신부, 오용진 신부 외 사제단
무료대절반·종식신청: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8936-2331 절두산 출발, 010-5202-5145 대방동 8시30분 출발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여름 성소 캠프

1)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 문의: 02)828-3522
때, 곳: 7월10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2)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7월30일(일)까지 접수 / 문의: 010-6221-3520

중1~고2	8월12일(토)~13일(일)	살레시오 수련관
고3~일반인	8월19일(토)~20일(일)	(대전 정림동)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요양센터 입소어르신(여성) 모집

운영: 까리파스수녀회 / 문의: 02)582-6004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소지 여성 어르신
단체명: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요양)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9월5일~10월31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 임시성전(주최, 송파구 동남로 13길32, 4층) /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가족관계 회복 미술치료	7월26일~8월30일 매주(수) 14시~17시(6주) 대상: 아동, 청소년 부모, 성인자녀 10명 내외
전문 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중합심리검사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일 세번째(토) 8월19일·9월16일·10월21일 16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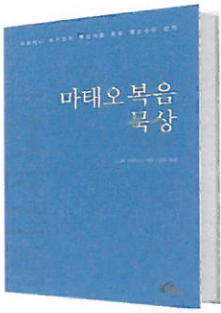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교육	토닥토닥달릴거야 심리여행: 8월9일~9월6일 (수) 10시~12시(5회기) / 아트살롱 '시니어 미술과 마음케어' 강좌: 선착순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7월23일(일) 9시	본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스승에의제자수녀회	7월16일(일) 13시30분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15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400-010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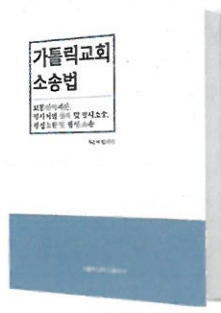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마태오복음 묵상

C. M. 마르티니 지음
바오로딸 | 420쪽 | 1만6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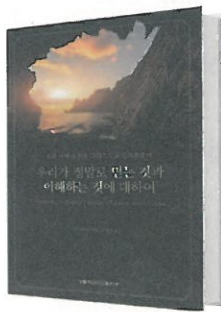
마르티니 추기경이 지도한 마태오복음을 통한 영신수련 강의를 묶은 묵상서다.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말씀을 대면하며,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느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가톨릭교회
소송법**

한영만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96쪽
2만원 | 문의: 02)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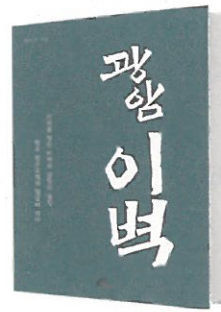
하나의 사회로서 교회는 개인적 차원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기초한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이 책은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인 소송이란 제도의 법률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필되었다.



신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폴 타이슨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59쪽 | 2만7천원
문의: 02)740-9718

그리스도교 형이상학의 역사, 이론, 적용에 대한 입문서다. 고대 그리스도교의 실재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복원할 수 있다면, 인간과 신적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신간
광암 이벽

황보윤 지음
바오로딸 | 324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하느님의 종 이벽 세례자 요한’의 생애를 중심으로, 유학의 나라 조선에 천주교 신앙이 수용되는 과정과 그 당시 조선의 사회상을 그린 초기 한국 교회사 소설이다.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 탄생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소설로 재구성하였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라자로 유흥식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북콘서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큐알(QR)코드 스캔



7월 22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 전석무료 | 문의: 010-7286-7724 (문자)

라자로 추기경님은 이 책에서 자전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사목적인 성찰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인들을 접하는 가운데 탄생한 신앙을 이야기하며, 평신도들에게서 비롯된 젊고 진취적인 교회,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생애와 영성, 교회와 사제직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인터뷰하여 엮은 책 『라자로 유흥식』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7월 22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에서 열린다. 유흥식 추기경과 소프라노 임선혜가 출연하며, 방송인 류시현이 진행한다.(신청은 상단 큐알(QR) 코드 이미지 스캔)

F. 코센티노 엮음 | 바오로딸 | 168쪽 | 1만3천원 | 신간문의: 02)944-0944

제2288(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사목회의 : 7월 9일(주일) 12시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7월 18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7월 16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7월 25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15일(토)~16일(주일)

장소 : 여주관광공원

회비 : 가정당 60,000원

문의 : 지파 교감 (010-8081-9812)

◎ 연희동성당 복사캠프

일시 : 7월 26일(수)~27일(목)

장소 : 용인 에버랜드

대상 : 연희동성당 복사단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4일(금)~6일(주일)

장소 : 어름치 캠프학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신청서 혹은 인스타그램 DM

회비 : 80,000원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일시 : 8월 11일(금)~13일(주일) 2박 3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유치부 ~ 6학년

회비 : 인당 50,000원

문의 : 이경화 로사 교감 (010-2737-4091)

※ 주일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 여름캠프 (얼리버드 할인 안내)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접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학부생 50,000원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제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청년 전례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전례단장 (010-8732-7810)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7. 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6	779 (37.7%)	742 (35.9%)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6월 26일 ~ 7월 2일)

익명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김재균	오만원
이영자	오만원	박정수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3주일)

교무금	16,050,000원
주일헌금	5,390,000원
교황주일2차헌금	1,868,000원

입당	337	봉헌	210, 340, 342	성체	180, 183, 344	파견	82
----	-----	----	---------------	----	---------------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